

최승희의 월북과 그 이후의 무용행적 재조명
성기숙
성균관대 강사

ABSTRACT

A Study on the Review of Going to North Korea of
Choi Seung-hee and her Dance Achievements after that
Seong Gi-suk

Lecturer in Dance at Sung Kyun Kwan University

This study, which is focused on going to North Korea of Choi Seung-hee and her dance achievements after that, has a significance in view of the review of her achievements on the basis of records in the newly collected Joseonyesul (The Art of Joseon) of a monthly magazine of North Korea. Motives of her going to North Korea can be considered: first, the loss of a base of dance in South Korea under the condition an ideological dispute between the left wing and the right wing immediately after liberation; second, effects of her husband Ahn Mak of a progressive literary man; and third, Kim Il-sung's intentional enticement strategies to target establishment of socialism.

Choi Seung-hee's dance achievements since going to North Korea showed different aspects by changes in politics and literary policies of North Korea; Neo Democracy Establishment Period (1945~1950), National Liberation War Period (1950~1953), Postwar Reconstruction Period (1953~1960), and Grand Chollima Upsurge Period (1960?). It is said that she retired from the dance world of North Korean since 1960?, and was purged in 1967. But, there are a variety of views about her last moment.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pproach this issue from the many-sided viewpoints with new information.

■참고문헌

- 강만길(1984). 『한국현대사』, 서울: 창작과 비평사.
- 정병호 외(1991). 『북한의 공연예술 II』, 서울: 한국문화예술진흥원.
- 정병호(1995). 『춤추는 최승희 세계를 휘어잡은 조선여자』, 서울: 뿌리깊은 나무.
- 이애순(2002). 『최승희무용예술 연구』, 서울: 국학자료원.
- ___(편, 2002) 『최승희무용예술문집』, 서울: 국학자료원.
- ___(2001). “朝-中무용에 나타난 최승희 무용의 영양 및 관련양상”. 『20세기 조선민족무용 및 최승희무용예술』, 연변: 변국제고려학회 연변대 예술연구소 주최 학술심포지움논문집.
- 이강렬(1989). “한 예술가로서의 최고 영예와 몰락”. 『객석』, 서울: 예음문화사.
- 이기봉(1986). 『북의 문학과 예술인』, 서울: 사사연.
- 이철주(1966). 『북의 예술인』, 서울: 계몽사.
- 서대숙(2001). “김일성의 저작문헌”.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, 『북한현대사 문헌연구』, 서울: 백산서당.
- 김연각(1999). “북한의 통일정책과 민족해방전쟁론”.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, 『북한해방 8년사』, 서울: 백산서당.
- 우길명(1975). “월북한 무용가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”. 『무용』 제2집, 한국문화예술진흥원.
- 조동화(1976). “무용개관”. 『문예총감』, 한국문화예술진흥원.
- 안제승(1985). “한국무용사”. 『한국연극 무용 영화사』, 대한민국예술원.
- 성기숙(1992). “해방직후 춤의 전개양상과 성격 연구”. 『한국무용연구』 제10집, 한국무용연구회.
- ___(2001). “최승희 무용예술에 나타난 전통수용 양상”. 『한국무용연구』 제19집, 한국무용연구회.
- 최승희(1958). 『무용극대본집』, 평양: 조선예술출판사.
- ___(1958). 『조선민족무용기본』, 평양: 조선예술출판사.
- ___(1951). “중국무용예술의 장래”. 북경: 인민일보, 1951년 2월 18일자.
- ___(1957). “세계에 자랑 떨친 우리의 무용예술”. 평양: 조선예술, 1957년 10월호.
- ___(1957). “형제 나라들의 방문 공연”. 평양: 조선예술, 1957년 3월호.
- ___(1961). “지상 낙원에 대한 무용서사시, 대동강반에서”. 평양: 조선예술, 1961년 6월호.
- ___(1961). “무용과 문학-무용극 원본 창작문제를 중심으로”. 평양: 문학신문, 1961년 6월 20일자.

- ___(1962). “무용창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-아동무용에 대하여”. 평양: 조선예술, 1962년 6월호.
- ___(1966). “인민의 애국투쟁을 반영한 우리나라 무용예술”. 평양: 조선예술, 1966년 11월호.
- ___(1966). “무용소품의 사상예술적 높이를 위하여”. 평양: 조선예술, 1966년 9월호.
- ___(1966). “현실 속에서만이 훌륭한 예술이 나올 수 있소”. 평양: 조선예술, 1967년 7월호.
- 안 막(1943). “동방무용의 창조를 위하여”. 서울: 『부인공론』, 1943년 3월호.
- ___(1958). “시 - 벽화/ 춤“, 평양: 조선예술, 1958년 10월호.
- 강옥채(1957). “최승희무용연구소 예술인들의 소감”. 평양: 조선예술, 1957년 3월호.
- 김민혁(1959). “문학예술 분야에서의 부르조아 사상의 표현을 반대하여”. 평양: 조선예술, 1959년 1월호.
- 김승구(1957). “모스크바 축전에서의 조선예술”. 평양: 조선예술, 1957년 10월호.
- 김종화(1958). “귀중한 선물-조선민족무용기본(1)에 대하여”. 평양: 조선예술, 1957년 10월호.
- 문하연(1956). “인민배우 최승희”. 평양: 조선예술, 1956년 11월호.
- 박용자(1961). “무용예술의 질 제고와 현실 침투”. 평양: 조선예술, 1961년 2월호.
- 서만일(1958). 『해방 후 우리 문학』, 평양: 작가동맹출판사.
- ___(1957). “조선일 빛내고저(①~⑥)”. 평양: 조선예술, 1956년 10월호~1958년 3월.
- 유영근(1959). “우리 무용극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”. 평양: 조선예술, 1959년 11월호.
- ___(1961). “현실과 무용언어”. 평양: 조선예술, 1962년 2월호.
- 장 향(1959). “혁명 전통을 반영한 예술작품 창조를 위하여”. 평양: 조선예술, 1959년 6월호.
- 정도원(1961). “천리마 현실과 무용창작”. 평양: 조선예술, 1961년 11월호.
- 정지수(1956). “민족무용극 맑은 하늘 아래를 보고”. 평양: 조선예술, 1956년 9월호.
- ___(1961). “우리 무용예술이 달성한 찬란한 성과”. 평양: 조선예술, 1961년 8월호.
- 정준채(1957). “첫 천연색 예술영화 사도성의 이야기를 끝내고”. 평양: 조선예술, 1957년 4월호.
- 최승근(1961). “천리마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우리 무용예술”. 평양: 조선예술, 1961년 9월호.
- ___(1960). “현대적 주제의 무용작품 창작에 있어서의 내용과 형식의 통일문제”. 평양: 조선예술, 1960년 11월호.
- 한경수(1959). “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 결정 <문학예술 분야에서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데 대하여>와 예술인들의 과업”. 평양: 조선예술, 1959년 1월호.
- “총천연색 예술영화 사도성의 이야기”. 평양: 조선예술, 1956년 11월호.
- “일본의 저명한 무용가 이시이 바쿠 래조”. 평양: 조선예술, 1956년 11월호.
- “모스크바 축전에서 돌아와서-제6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입상자 좌담회”. 평양: 조선예술, 1957년 10월호.
- “음악무용서사시, 영광스러운 우리조국”. 평양: 조선예술, 1959년 11월호.
- “김일성 동지의 강령적 교시, <문화와 예술은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>의 위대한 승리”. 평양: 조선예술, 1961년 5월호.
- 『김일성선집』 제4권, 평양: 조선로동당출판사, 1954.
- 『조선중앙연감-1950년자료』. 평양: 조선중앙통신사, 1951.
- 문학신문. 1966년 3월 22일자/ 1966년 3월 25일자/ 1966년 4월 1일자.
- 민주일보. 1946년 7월 21일자.
- 대동신문. 1946년 7월 24일자.
- 경향신문. 1946년 12월 19일자.
- 부산일보. 1956년 6월 21일자.